

2015 인문

1번 문제 답안

동물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희생 또는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개체인가. (가), (나), (다)는 모두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가)의 용모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나), (다)는 동물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는 차이점이 있다. (가)의 판사는 생태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 그리고 자연까지 보호해야함을 역설하며 썩을 해친 용모의 행위를 꾸짖는다. 그러나 (가)의 용모는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권리가 동물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주장한다. 이는 인간은 동물보다 우수하며 인간의 목적을 위해 동물은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 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종우월주의에 입각하여 동물의 생명을 희생하는 행위를 비판하며, (다) 또한 인간은 동물에게 간접적 의무를 지니기에 존중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생명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동물만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동물을 인간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된다고 보는 반면에 (다)는 종우월주의에 입각하여 동물을 인류애적 감정의 발현을 위한 도구로써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차이가 있다. (나)는 생명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동물들의 가치를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상대적 입장에서 주관적, 해석적으로 파악해야함을 역설한다. 종들의 서열관계를 나열하는 것은 일견 과학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종우월주의에 입각한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개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의 입장에서는 (가)의 판사의 행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판사는 동물을 포함한 자연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보호해야한다는 생태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종우월주의에 입각하여 동물의 희생을 정당화하려는 용모의 행위를 비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의 용모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의 용모는 종우월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편익을 위해 썩의 목숨을 희생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는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이성이 없는 동물은 인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고 하며 인간이 인류애적 감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물을 이용해서 인류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수행해야함을 주장한다. 이는 동물을 인간적 감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습상대라고 파악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의 입장에서 (가)의 판사의 행위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판사가 용모를 꾸짖은 이유가 인류애적 발현을 위한 연습 도구로써 썩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썩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인간과 유사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의 용모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용모의 행위는 인류애적 감정의 발현을 위한 도구로 적합하지 않은 썩을 농사라는 목적에 방해가 되는 수단으로 파악하여 썩의 생명을 해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번 문제 답안

<도표 1>은 먹이사슬에 따른 자연적 현상인 '식용 어류'와 '고양이가 죽인 야생동물', 인간의 목적을 위해 희생된 '실험용 동물'을 보여준다. 또, <도표 2>는 <도표 1>에서 희생된 동물의 대다수가 설치류, 어류, 조류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도표 3>은 <도표 2>에서 실험용으로 희생된 동물들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인공심장 판막', '유방암 치료', '천식 치료', '항생제'로 이용된 것과 인간의 고통을 감소하기 위해 '인슐린', '마취'에 이용된 것을 보여준다.

아무리 (나)가 생명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동물만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든 <도표1>이 보여주는 '식용어류'로 죽은 동물의 수는 자연스러운 생태계 현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며 먹이 사슬 상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용어류'로 죽은 동물이 '고양이에 의해 죽은 야생동물'보다 수가 훨씬 많다고 해서 이것이 인간중심적 행위의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 인간과 고양이는 개체수의 차이가 있고, 개체의 크기 차이 때문에 섭취해야 할 양도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에 의하면 <도표1>의 '실험용 동물'은 자연스러운 생태계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위해 수단화되어 희생된 동물들의 수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일단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도표 2>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종 차이에 따른 정당화 여지는 없다. (나)는 종 차이에 따라 각 동물이 가지는 가치의 차이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표 3>의 '인슐린'과 '마취'로 동물을 희생한 것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 이는 단순히 인간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이 이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심장 판막 이식', '유방암 치료', '천식치료', '항생제'를 위해 동물들을 희생한 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예외적 정당화가 가능하다. 아무리 인간이 동물의 특수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동물의 특수한 가치를 인정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 또한 (나)와 같은 이유로 <도표 1>의 '식용어류'는 긍정할 것이다. 하지만 '실험용 동물'은 <도표1>만 보았을 때는 평가가 유보된다. (다)는 종의 차이에 따른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도표 2>에 의할 때 '실험용 동물'은 일차적으로 정당화 된다. 왜냐하면 '인류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인 포유류와 영장류, 그리고 인간과 오랜 세월 같이 지내온 개, 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유사성이 떨어지는 설치류, 어류, 조류 등을 희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표 3>을 보면 '실험용 동물'은 더 정당화된다. 인류애적 감정발현의 연습도구로 적합하지 않은 설치류, 어류, 조류를 희생시켜 인간의 생존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2015 사회

1번 문제 답안

심리적 요인 혹은 객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로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며 '공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가), (나), (다)는 모두 '차이'와 '갈등'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가)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차이'에 대해 논하는 반면에 (나), (다)는 '차이'가 만들어내는 '갈등'의 해소에 대해 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가)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에 대한 기호의 '차이'에 따라 '갈등'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자신과 동일한 기호를 가진 내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신과 다른 기호를 가진 외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나)는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으로, (다)는 인간의 이타적 본성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말한다.

(나)는 (가)와 달리 '인종'이라는 '객관적 차이'가 만들어내는 '갈등'의 양상에 관해 보여준다. 이 점에서는 (나) 또한 (가)처럼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같다. 하지만 (나)는 더 나아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비록 100개의 기업, 5년의 기간이라는 제약은 있지만, 인종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정도와 인종 간 갈등 발생 사례 건수는 반비례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는 (나)보다는 조금 일반적, 추상적일 수 있는 '공감'을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은 이기적 본성도 가지고 있지만 상상력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이타적 본성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심리적 거리를 줄임으로써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왜 (나)에서 인종 간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인종 간 갈등 발생 사례 건수가 줄어드는가에 대해 알 수 있다. 인간은 원래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기에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수록 이를 쉽게 인지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여 공감을 통해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때문이다.

2번 문제 답안

(라)의 르블롱씨 부부의 사례는 (나)처럼 인종, 문화적 '차이'에 따라 '갈등'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르블롱씨 부부는 프랑스식 관용인 '뿔레랑스'를 통해 인종, 문화적 차이에 따른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양식을 존중하려고 노력하지만 냄새, 교육, 종교에 따른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한다. 교육을 통해 인종, 문화적 차이를 포용해야한다는 사실은 머리로 알고 있어 겉으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아 눈에 보이는 외적 갈등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들에 대해 완전히 공감할 수 없기에 내적갈등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죄의식을 가지기도 한다. 겉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랍인 치고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속으로는 은근히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양면적 태도도 지니고 있다.

(나)는 인종, 문화적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인종 간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활동의 정도를 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라)에 의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이 실험은 직장 내의 갈등에 국한된 것이다. 직장은 사적영역이라기보다는 공적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이 실험의 결과를 모든 영역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이에 따른 갈등이 생활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갈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둘째, 외적갈등은 줄어들 수 있으나 내적갈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인종, 문화적 차이가 계속 명확히 드러나기에 르블롱씨 부부처럼 겉으로는 다른 인종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내적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외적갈등이 자주 발생되어 서로가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 내적갈등이 증폭되어 하나의 사건이 살인, 방화 등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결국 이 실험은 눈에 보이는 외적갈등에만 집중했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는 공감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라)에 의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너무 이상적인 해결책으로서 현실적이지 않다. 르블롱씨 부부는 자신들이 아랍인들의 감정이나 상태를 이해해야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적개감만 높아졌을 뿐 문제상황을 해결하는데는 충분하지 않았다. 둘째, (다)는 상상력을 통해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신이 경험한 바에 비추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상상력을 발휘해도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르블롱씨 부부는 최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았지만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 종교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차이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공감은 무의미한 것이다.

2015 모의인문

1번 문제 답안

행복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공동체적인 것일 수도 있다.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가)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나)와 (다)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점에 차이가 있다. (가)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사회적 지위를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고귀한 사람도 노예가 될 수 있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의 여신에 의해 사회적 위치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 또는 체제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순응 속에서 타인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자각하고 자신의 직분을 다 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나)에서 부인은 남편이 행복을 위해 가정을 떠나는 것이 자신에게 불행으로 돌아올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존여비의 유교적 사상에 저항하려는데, 이는 사회체제에 대항하여서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는 것으로서 (가)의 사회체제에 순응하여 행복을 찾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다)에서는 공동의 이익이 우선되어야하므로 개인적 행복과 더불어 타인의 행복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나)와 (다)에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나)는 공동체 행복의 총합보다 행복의 형평성을 중시하는데 반하여 (다)는 공동체 행복의 총합을 우선시한다. (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그 구성원인 개인의 행복이 증가해야함을 주장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이 늘어난다면 개인의 행복은 일정 부분 유보될 수 있음을 말하는 듯하다. (나)의 부인은 가정의 행복의 총합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편과 언쟁을 벌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는 남편이 집을 떠남으로써 남편의 행복이 부인의 불행보다 더 커진다면 공동체 행복의 총합이 더 커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2번 문제 답안

제시문 (나)는 행복의 형평성을 중요시하지만 (다)는 각 개인의 행복의 총합을 중요시한다. (나)의 부인은 가정의 행복의 총합보다는 자신의 행복, 즉 형평성을 위하여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다)는 개인의 행복을 유보하여서라도 공동체 행복의 총합을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라)의 B국가군은 국민들의 행복의 총합이 크지만 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다. 행복의 산술적 평균은 높지만,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C국가군은 행복의 총합이 적지만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다. 행복의 산술적 평균은 낮지만, 편차가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판단하면 A는 행복도가 낮고 편차도 큰 국가군이고, D는 행복도가 높고 편차도 작은 국가군이다.

먼저, (나)와 (다) 모두 네 개의 국가군 중에서 D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군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D국가군은 행복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행복도가 높았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하는 (나)의 입장에 부합하고, 국민들 행복의 총합이 네 국가군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총합만을 중시하는 (다)의 입장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는 (나)와 (다) 모두에 의해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인데, 행복도가 낮으며 형평성 또한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B와 C의 국가군에 대한 평가는 같린다. (나)는 C국가군을 B국가군보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나, (다)는 B국가군을 C국가군보다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구성원들의 행복의 전체적 총합보다는 행복의 형평을 고려하는 입장이기에 행복의 산술평균이 다소 낮더라도 편차가 작아서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 C국가군을 B국가군보다 더 이상적이라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에 의하면 일부 구성원들의 이익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사회적 이익의 총합이 이전보다 더 커진다면 이는 옳은 행위이다. 따라서 (다)는 형평성이 다소 낮더라도 산술평균이 더 커서 사회 전체적 이익의 크기가 더 큰 B를 C보다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2015 모의사회

1번 문제 답안

언어는 한 시대의 문화를 투영하는 거울이기에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제시문 (나)의 언어현상은 어문규정을 위반한 신조어와 어문규정을 지키며 독창성을 발휘한 신조어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방가’, ‘즐겜’처럼 편리성 또는 친근성을 위한 언어현상, ‘ㅋㅋㅋ’, ‘ㄴㄱ’처럼 통사구조를 무시하고 자음으로만 된 언어현상, ‘술대’, ‘강추’ 같은 축약형 언어현상, 그리고 ‘겨머안’, ‘머찌근’같은 맞춤법이나 표기법을 무시하고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언어현상이 포함된다. 그리고 후자에는 ‘삼포시대’, ‘손주병’처럼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언어현상이 포함된다.

제시문 (가-1)은 사회적 규범의 준수를 강조한다. 한 사회의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와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에서만 안정감을 느끼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삼포시대’, ‘손주병’과 같은 언어현상은 어문규정을 지키며 창조성을 발휘한 것이기에 긍정적 평가를 내릴 것이다. 그러나 ‘방가’, ‘ㅋㅋㅋ’, ‘술대’, ‘겨머안’으로 대표되는 어문규정위반 신조어들은 부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의 사회규범이라 할 수 있는 어문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잘못된 어문규정을 학습하게 하여 창조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표준어의 올바른 사용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하여 형성되고 발달된 이러한 언어현상은 중·장년층에게는 생소한 것이어서 중·장년층은 이러한 언어현상에 익숙한 신세대들과 사회적 거리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중·장년층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

(가-2)는 우리가 ‘일탈’로 규정하는 비전형적 행위가 실제로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유희적 독창성을 발휘하게 하여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틀을 따르는 것은 예상된 결과만을 낳을 뿐이므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연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위 언어현상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언어현상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기존의 용례에는 맞지 않는 일종의 ‘일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하자면 ‘방가’같은 경우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반갑습니다.’에 친근감을 더하여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표현법의 가짓수를 늘려줄 수 있다. 그리고 ‘삼포시대’같은 경우 각박한 세상을 우회적으로 풍자하는 단어로써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일으켜 사회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사회변화의 연료로써 작용할 것이다.

2번 문제 답안

사회규범은 국가나 시대에 따라 상대적이다. 그리고 때로는 기존 규범을 탈피하는 것이 사회적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제시문 (다)는 사회규범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규범은 같은 시대라도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마약으로 규정되어 유통이 금지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규범은 같은 국가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대마초는 네덜란드에서 호황을 누리다가 최근 엄격한 사회분위기에 의해 시들해졌고, 미국에서 불법약물로 금지되어오다가 최근 몇몇 주에서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제시문 (라)는 A국가와 B국가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의 관점에 부합한다. 첫째, 1999년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은 17.2%에 불과한 반면 B국의 사법시험 지원율은 무려 38%에 이른다.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사회규범이라고 한다면, 이는 같은 시기에도 국가별로 사회규범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둘째, 1999년 17.2%에 불과했던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이 2008년에는 38%까지 치솟았다. 이는 같은 국가 내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회규범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위의 평가를 토대로 향후 A국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볼 수 있다. 첫째,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은 38%에서 정체를 맞이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99년에 이미 B국이 진보적으로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38%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38%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정체가 필요하거나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의 성장은 38%가 한계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8년에 38%를 기록한 A국도 한 동안 정체를 맞이하거나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둘째,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은 계속 높아질 수 있다. B국은 A국보다 먼저 38%를 기록했으나 변화 없이 10년간 이 비율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A국은 비록 B국보다 늦은 시기에 성역할의 개방성에 대한 인식이 진보적으로 발전했지만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되어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은 B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을 추월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것을 사회적 발전이라고 본다면 B국은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성역할에 있어서 사회적 정체를 맞이하고 있지만, A국은 기존의 사회규범을 탈피하여 온 결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라는 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14 인문

1번 문제 답안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 등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있지만, 개개인마다 공감을 드러내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공감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문 (가)는 공감능력 부족을 서술하고 있는데 반해 (나)는 지나친 공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는 이러한 (가)와 (나)의 한계를 모순적으로 종합하는 양면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제시문 (가)의 아이히만은 공감능력의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이 처한 상황이나 느꼈을 두려움에 대한 공감 없이 국가에 의해 조작된 거짓 공감에 근거하여 그들을 타자화시켜 무차별적 폭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공감 능력의 부재로 무차별적 폭력성을 드러낸 것이 (가)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나)의 화자는 포스터 속에 갇혀 날지 못하는 비둘기의 상황과 비둘기가 느낄 답답함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이 과정에 독자들도 참여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화자가 느낀 상실감과 안타까움은 치유되지 않는다. 일방향적인 공감으로만 일관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나)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다)의 아킬레우스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튀카온에게 군인으로서의 숙명과 인간의 실존적 한계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의 동의를 구하며 그에 공감한 튀카온을 죽인다. 이러한 태도는 타자에 대한 공감 없이 폭력성을 드러내는 (가) 일면적 태도와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감만으로 일관하는 (나)의 일면적 태도를 양면적, 모순적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가)에는 없는 공감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나)처럼 일방향적인 공감만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 내지 공감을 이끌어내어 폭력성을 드러내어 문제 상황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2번 문제 답안

교감과 소통이 화두인 이 시대에 진정한 공감의 필요성과 그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각 제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가)의 아이히만은 나치즘에 근거하여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이는 ‘공감’능력의 부재로 인한 결과이다.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이 학살 과정에서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히만은 아무 거리낌 없이 유대인들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가할 수 있었다. 나치만을 자신과 동일한 ‘주체’로 파악하고 유대인들을 타자화한 것이다. 아이히만이 한 번만이라도 ‘상상하기’를 통해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제시문 (다)의 아킬레우스는 아이히만보다는 진일보한 태도를 보인다. 전쟁포로인 뤼카온에게 군인으로서의 숙명과 인간 존재의 실존적 한계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동의를 구한다. 그러나 그의 처지에 깊은 공감은 하지 못하고 결국 그를 살해하며 ‘폭력성’을 드러내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의 태도에서도 배울 점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감을 절제하는 능력이다. 지나친 공감은 오히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마녀사냥’으로 불리는 사이버테러는 네티즌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쪽의 주장에만 너무 깊이 공감한 나머지 이성을 잃어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다.

제시문 (라)의 워딩턴은 강도들에 의해 어머니를 잃었지만 ‘상상하기’를 통해 그들을 자신과 동일한 ‘주체’로 받아들이고 ‘공감’하며 그들을 결국 용서한다. 아킬레우스의 공감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반해 워딩턴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워딩턴은 사건 당시 느꼈던 ‘폭력성’을 억제하고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었다.

공감의 결여는 아이히만의 예처럼 타자화를 통한 무차별적 ‘폭력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데서 공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워딩턴이 보여준 ‘상상하기’를 통한 역지사지의 태도로 ‘공감’으로 타자를 나와 동일한 ‘주체’로서 대하되, 아킬레우스가 보여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야할 것이다.

2014 사회

1번 문제 답안

개인은 사회적 압력에 순응하기도 하고, 이에 맞서 자신의 자율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가), (나), (다), (라)는 모두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자율성에 대해 논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자율성의 정도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각 제시문들은 그 자율성의 정도를 달리 파악하고 있는데, 자율성을 인정하는 정도는 (가), (라), (다), (나)순으로 높다.

먼저, (나)는 개인은 태생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역할 기대를 부여받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해나간다고 본다. 그러므로 개인이 집단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윤리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만 인정하는 견해이다.

다음으로, (다)는 개인은 타고난 선한 본성과 교육 덕분에 타인을 먼저 배려하기도 하지만 사회 집단의 경우는 하나의 개인이 아닌 집합체이므로 이러한 본성이 결여되어 있고, 개인들의 욕망이 합쳐지기 때문에 집단의 영리를 위한 이기적 행위만이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다)는 개인이 집단적 차원에서의 이기심을 억제할 만큼의 자율성은 없지만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율성은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에 개인적 차원에서의 개인의 자율성도 인정하지 않는 (나)보다는 사회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자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건전한 집단의식과 도덕의식을 가진 사회집단의 덕목을 시민적 '우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민적 '우의'를 가진 사회집단은 내부적 자정활동을 통해 비도덕적인 집단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이기심을 드러내지 않고 건전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라)는 개인이 집단적 차원에서의 이기심도 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기에 (다)보다 사회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자율성을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는 이성과 감성으로써 타인들의 처지를 헤아려 사회체제와 규칙들을 공평하고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평한 관망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사회적 체계의 확립도 이러한 개인적 선택원칙의 외연이 넓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는 결국 사회도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이므로 각 개인들이 정치적 공동체를 통하여 사회의 합리적 규칙을 만든다고 보는 (다)보다 개인에게 큰 자율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2번 문제 답안

사회적 갈등은 타인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각 제시문들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제시문 (가)는 ‘공평한 관망자’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갈등의 당사자들이 이성과 공감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추기급인’, ‘역지사지’의 자세로서 타인의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합리적 선택 원칙의 외연을 넓혀 재화가 사회 전체에 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시문 (나)는 각 개인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사회적 정체성을 갖게 되고 개인의 도덕성과 자아실현도 사회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각 개인에게 지워진 기대와 의무를 인식하고 자신의 사욕보다는 공적이익을 추구하는 ‘떨사봉공’의 태도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다)는 각 개인은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등의 도덕성을 드러낼 수 있지만, 집단은 자연적 충동과 집단의 이기심 때문에 개인보다는 도덕성을 드러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에게는 타고난 선한 본성을 교육을 통해 더 선하게 만들어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고, 집단에게는 강력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집단적 자연충동을 억제하여 개인의 이기심이 모여 집단적 이기심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님비’, ‘핍비’현상 등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귀를 기울여볼만한 해법이다.

제시문 (라)는 정치적, 윤리적 결속으로 이루어진 ‘우의’를 지닌 시민들로 구성된 폴리스가 많을수록 집단의 이기심은 억제될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도덕적 시민사회가 많이 출범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사회의 도덕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2013 인문

1번 문제 답안

아름다움은 그 유형에 따라 인위적 아름다움, 자연적 아름다움, 그리고 이 둘의 조화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유형은 다르다.

(가), (나), (다)의 공통주제어는 ‘아름다움’이다. (가)의 화자는 상품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휘어진 매화보다 자연 그대로의 매화를 더 아름답다 여기고, (나)의 화자는 건축물인 무량수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태에 감탄하고, (다)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극도의 인위성으로 자연스러움을 연출하는 것을 아름답다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가)는 인위적 아름다움을 부정하고, (나)와(다)는 인위적 아름다움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의 화자는 상품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매화를 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이는 인위적으로 매화를 휘게 하여 만든 곡선미보다 자연 그대로의 매화가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화자는 매화가 다시 자연적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도록 휘어진 매화를 동여매고 있는 끈을 풀어 매화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 한다. 그러나 (나)는 인위적 건축물인 무량수전을 아름답다 여기고 제시문 (다)는 인위적으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것을 아름답다 여긴다.

하지만 (나)는 인위적 아름다움만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아름다움까지 긍정하며 이 둘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반해, (다)는 철저하게 인위성만을 긍정하여 이를 통해 자연적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나)는 무량수전의 긴 석축들이 산의 능선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예찬하며 이를 순리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자연의 경관에 멋스러운 무량수전의 인위적 아름다움이 더해져 서로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다)는 일견 자연적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인위적 아름다움만을 예찬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에서 말하는 자연적 아름다움이란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는 성질의 아름다움이 아니며 극도의 인위적 연출로써 얻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는 아름다움의 역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번 문제 답안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도 충분히 가치 있지만, 때로는 이를 인간의 노력으로 가공하면 자연은 이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

(라)는 자연물인 다이아몬드 원석과 가공물인 다이아몬드 보석을 제시하고 있다. 두 사물을 심미적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회백색의 몽툰한 원석보다 정제되어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또, 경제적 관점에서도 다이아몬드 보석은 높은 심미성과 희소성 때문에 원석보다 더 높은 교환 가치를 지니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도 보석이 원석보다 더 가치 있는데, 이는 자연물인 원석을 가공품으로 만듦으로써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며, 가치의 교환이 일어나는 등의 사회·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의 화자는 자연물이 가공물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화자는 가공된 매화가 드러내는 곡선미보다 자연 그대로의 매화가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화자의 견해는 이전의 논의를 토대로 평가해볼 때 옳지 않다. 첫째, 가공된 매화에서는 유려한 곡선미를 찾을 수 있기에 가공된 매화는 멋있는 본래의 매화보다 더 심미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가공된 매화가 드러내는 곡선미와 매화를 가공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기술에 의한 매화의 희소성 때문에 가공된 매화는 본래의 매화보다 경제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셋째, 매화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분재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상업이 발달하는 등의 사회·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13 사회

1번 문제 답안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원동력으로 하여 삶을 살아가지만, 그 희망의 성격이 비현실적인가 현실적인가에 따라 사뭇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

(가-2)는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낙관성이 필요하지만 이 때 낙관성은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비현실적 낙관적 사유는 주관적으로 구성된 것이기에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이를 근거로써 한 판단은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2)는 비현실적 낙관적 사유에서 벗어나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과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를 하며 환경적·사회적 피드백을 수용하고, 힘든 상황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건설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돈 키호테는 비현실적 낙관성을 지닌 인물로서 비현실적 낙관성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돈 키호테는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되어있다. 그리고 돈 키호테가 거인으로 생각하는 사물이 실제로는 풍차임을 알려주는 산초의 말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환경적·사회적 피드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끝까지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여 풍차로 돌진한 것을 볼 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규칙적 점검 및 자신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힘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나)의 돈 키호테는 처참하게 들판을 때굴때굴 구르게 되었다.

이에 반해 (다)의 화자는 현실적 낙관성을 지닌 인물로서 현실적 낙관성으로 인해 긍정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다)의 화자는 자신을 병신이라고 평가하는 등 자신의 용모가 남들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드러낸다. 그리고 부모, 동생들과 자신의 혼사를 의논하는 모습을 볼 때 환경적·사회적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 이를 기회로 삼으려하고, 부모동생만 믿으면 혼사에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이 중매파를 부르는 모습 등을 볼 때 힘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나타나며 돌변하는 상황에 대한 규칙적 점검 및 자신에 대한 재평가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의 화자는 김도령과의 혼인약속을 받아내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2번 문제 답안

(라)의 자료의 해석을 통해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현실성에 기반을 둔 낙관성이 비현실적 낙관성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낳는다. 실험에서 현실성 없는 낙관성을 가진 집단은 2점으로 최하위의 점수를 기록한 반면에 현실성 있는 낙관성을 가진 집단은 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기 때문이다. 둘째, 낙관성의 정도와 무관하게 인식의 현실성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다. 왜냐하면 낙관성의 정도가 높은 낮은 현실성이 높은 집단이 성적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셋째, 현실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낙관성이 성적 향상에 기여하나 현실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낙관성이 성적향상을 저해한다. 먼저, 현실성이 높을 때 낙관성이 높은 집단은 5점을 기록한 반면에 낙관성이 낮은 집단은 4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현실성이 낮을 때 낙관성이 높은 집단은 2점을 기록한 반면에 낙관성이 낮은 집단은 3.6점을 기록했다. 이는 낙관성만으로 학업성취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1)은 오로지 낙관성의 정도만이 행복과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며 현실성에 대한 이해도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오히려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평가를 하는 것보다 자신을 속여서라도 과도한 낙관적 성향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그러나 (라)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가-1)의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1)은 현실성 없는 과도한 낙관성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라)의 실험결과에서 현실성이 낮고 낙관성이 높은 집단은 2점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현실성이 높고 낙관성이 높은 집단이 5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을 볼 때 낙관성은 현실성을 전제할 때 긍정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가-1)은 낙관성만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낙관성이 높을수록 좋은 미래를 맞이한다고 주장하지만 낙관성의 정도와 무관하게 인식의 현실성이 높을수록 성적이 더 높았던 점, 현실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낙관성이 성적 향상에 기여하나 현실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낙관성이 성적향상을 저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옳지 않다. 셋째, (가-1)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였다. (가-1)은 과도한 낙관성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며 ‘어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가-1)의 주장은 (라)의 실험 결과에 의해 옳지 않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편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급하게 일반적 원리를 도출한 우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2 인문

1번 문제 답안

낭비는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행위이지만,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써 작용하기도 한다. (가)와 (나)는 낭비에 관해 논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는 낭비를 도락의 발현으로 평가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는 낭비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써 평가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차이가 있다.

(가)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활력을 효율성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모하려는 방향성, 즉 도락을 가진다. 이러한 도락은 효율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낭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가)는 낭비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낭비가 인간의 생명력의 발로이며, 과학, 철학 등의 학문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나)의 길브레스는 벽돌쌓기에서 이동거리의 단축, 위치의 최적화, 분업화, 전문화 등을 시도하여 작업에서의 최대 효율성을 얻으려고 한다. 이러한 과학적 계산에 의한 설계법은 벽돌쌓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소한 요인이라도 제거 또는 보완하여 물리적,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다)는 기억을 하기 위해 망각을 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을 우리 뇌가 기억한다면, 특정한 시점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그 시점까지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거쳐 가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뇌는 의도적으로 삶의 일부분만을 기억하여 빠르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변칙적으로 잊힌 기억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가)를 통해서 (다)를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첫째, 망각되는 일부기억들을 불필요한 것, 즉 낭비라고 인식한 것은 옳지 않다. 기억을 통한 도락의 발현으로써 옛 추억을 떠올려 감상에 젖는 것, 과거의 일을 재구성하여 문학작품을 만드는 것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변칙적으로 기억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도락의 발현근거가 될 수 있는 기억들이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통해서 (다)를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첫째, 선택적 망각의 대상이 된 기억들을 낭비라고 보는데, 이는 낭비가 아닐 수 있다. 낭비는 물리적, 시간적,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변칙적으로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낭비를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규정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변칙적으로 기억이 돌아오는 것은 낭비를 줄이는 이차적·분업적 기제이기 때문이다. 뇌는 원근단축을 통해 일차적으로 불필요한 기억들을 삭제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차적으로 검수를 통해서 잘못 삭제된 필요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고 이 과정은 오히려 낭비를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번 문제 답안

(나)의 길브레스는 작업설비 및 작업장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작업 위치 및 순서를 정해주고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해 시간과 노동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려고 했다.

(라)는 선명도와 시간을 조작변인으로 하여 인지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한 결과인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시간이 많고, 선명도가 높을수록 인지정확도가 높아진다. 122초를 주고 희미한 정도가 '하'였을 때 인지정확도가 72.9%로 제일 높았기 때문이다. 둘째, 정확성에는 시간보다는 선명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 <표>에서 인지정확도는 대체로 세로보다는 가로 간에 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두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면접을 설계할 때는 시간낭비와 면접관들의 피로도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면접의 정확성을 높여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경쟁률이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서류심사에서는 정확성보다는 효율성이 좀 더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면접관들의 피로도와 작업의 효율성 고려하여 면접관들이 분업화, 전문화를 통하여 서류심사만을 따로 진행하는 면접관을 배치해야 한다. 둘째, 선명도를 높여 추가적으로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눈에 쉽게 띄는 학점, 어학점수, 관련자격증을 제출토록 설계해야 하고, 소극적으로는 직업과 관련 없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셋째, 이때에도 일정시간은 확보되어야 정확성이 담보되므로 지원자들의 자료 당 최소 검토시간을 설정해야 한다.

면접심사에서는 시간이 좀 더 들더라도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설계가 필요하다. 첫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당 최소 시간을 정하여 면접관이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단순하고 쉬운 질문보다는 복잡적이고 심화적인 질문을 준비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분업화를 통해 분야별로 질문을 나누고 그 분야에 정통한 면접관들이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 사회

1번 문제 답안

다수는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주체인가 아니면 엘리트들이 만드는 새로움을 모방 혹은 판단하는 역할을 할뿐인가.

(가), (나), (다)는 모두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다)는 새로움을 만드는 주체를 다수라고 보는데 반해 (가)와 (나)는 소수의 엘리트로 보는데 차이가 있다.

(다)에서 새로움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 문제 해결의 틀 발견 등의 사회적 진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진보는 소수의 엘리트들 지칭하는 '하나의 고유한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에 관한 해결책이나 생각을 다수가 공유, 모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즉, 다수가 주체가 되어 집단적 성찰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낸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가)는 타고난 영혼과 재능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새로운 종교를 창설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나)는 일반 대중은 걸작을 모방하는 아류만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움을 의미하는 걸작은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는 새로움을 모방하는 수동적 역할에 그친다고 보는 반면 (가)는 이 과정에서 다수가 새로움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적극적, 주체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나)의 다수는 자기 완결적 성격을 지닌 예술적 독창을 존경하며 단순한 모방으로써 다음 걸작이 탄생하는 과정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데 그친다. (가)의 다수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절대적 사회 지배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저급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회의 다수이다. 이들은 새로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때 새로움은 사회에 쉽게 정착될 수 있다. 둘째는 집단적 지배원리를 거부하고 다양한 욕구를 드러내는 다수이다. 이들은 새로움이 등장했을 때 이에 대한 질적 가치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거부하기도 하는 등 새로움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은 후자의 다수이다.

2번 문제 답안

제시문 (라)는 신곡에 대한 선호도를 개별형과 집단형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곡은 새롭게 떠오르는 장르의 곡이므로 새로움이라 할 수 있다. 개별형 사이트는 다른 참여자들의 다운로드 횟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다양한 욕구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형 사이트는 다른 참여자들의 다운로드 횟수나 평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획일화된 다수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횟수가 높을수록 수준 높은 곡’이라는 가정은 질 높은 문화는 다양한 욕구에 의해 생성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혁신은 획일성이 아닌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다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가)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우선 (가)는 획일적, 절대적 사고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과대평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잘 지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가장 수준 높은 곡1이라도 선호도는 49%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른 다수의 의견 즉, 지배적 견해 혹은 대중 심리에 영향을 받는 집단형에서는 최대 99%의 선호도를 얻었다. 이와 반대로 가장 수준 낮은 곡 1도 19%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집단형에서는 개인이 다른 다수의 지배적 의견에 영향을 받아 선호도가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가)의 혁신은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에 기초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획일적 성향을 가진 집단형 사이트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곡1이 1위를 차지했고, 가장 수준 낮은 곡10이 10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성에 근거하든 획일성에 근거하든 혁신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그림 2>에서 좀 더 수준 높은 곡 9가 집단형 1, 3에서는 곡 8보다 낮은 순위에 오르는 등의 변칙이 존재하긴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상위 곡과 최하위 곡의 순위가 일치했다는 것이다. 이는 혁신은 다수의 획일성 혹은 다양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다는 새로움이 가진 문화적 가치 혹은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 인문

1번 문제 답안

①인간은 동물과 달리 인생의 목적지가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뭇 다르다. ②세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개체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③하지만 (나)는 죽음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동물의 태도를 드러내지만 (가)와 (다)는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④(나)는 늙은 암컷 고릴라가 죽은 후 다른 고릴라들이 드러내는 태도를 보여준다. 아들 고릴라는 어미 고릴라시체를 계속 폭행했으며, 아들 고릴라가 쉬는 동안에는 다른 고릴라들은 그 시체를 건드리고, 털을 골라주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고릴라들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고릴라들은 지속적으로 사체에 유형력을 가하여 암컷 고릴라가 그에 반응하여 다시 움직이기를 바랐다. ⑤(가)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수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패로 인한 악취와 추악한 몰골과 관련 있다고 한다.

⑥하지만 인간이 죽은 자를 매장하는 것에 대해 (가)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행위라 파악하는 반면에, (나)는 죽음을 기피하여 살아있는 자와 분리시키기 위한 행위라 파악한다. ⑦(가)는 인간이 인간만이 가진 특수성, 즉 사후세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죽음을 삶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본다고 한다. 그래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매장으로써 죽은 자를 산 자와 함께 두어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다. ⑧(나)는 인간은 부패를 그 악취와 추악한 모습 때문에 기피한다. 죽은 자의 시체는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인간은 죽음을 기피한다고 한다. 이러한 기피는 현세의 삶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산 자와 분리시키기 위해 매장한다.

2번 문제 답안

제시문 (라)의 실험을 통해 배설물과 관련된 언어와 상황에 노출된 사람은 ‘죽음’에 관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실험은 모두 ‘갑’집단을 배설물에 대해 떠올리도록 조작했는데, 그 결과 ‘갑’집단은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을’집단보다 적게 완성시켰기 때문이다. 배설물은 ‘악취, 추악함, 상실, 소멸’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므로 사회 평균인이라면 배설물을 기피할 것이다.

제시문 (가)는 인간이 죽음을 삶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며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인다고 하며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에 따르면 ‘갑’집단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억제한 것은 ‘악취, 추악함, 상실, 소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배설물이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제시문 (다)는 죽음을 부패와 관련지으며, 기피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에 따르면 ‘갑’집단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억제한 것은 이미 ‘악취, 추악함, 상실, 소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배설물을 연상하거나 접한 상황에서 그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죽음에 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해석중 (다)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무(無)의 세계와 자기제어능력의 상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숫자 ‘4’의 발음이 죽을 사(死)와 같다고 하여 기피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의 주장대로 사람들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을’의 단어 완성률이 실험 2보다 실험 1에서 더 높았어야 한다. 실험 1의 ‘을’집단은 사회 평균인이라면 친근감을 나타낼 ‘친구’ 혹은 ‘벗’이라는 개념을 접한 반면에 실험 2의 ‘을’집단은 단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을 뿐, 친근감을 느낄만한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험 1의 ‘을’집단의 단어완성률은 6개 중 1.8개로 30%에 불과하지만, 실험 2의 ‘을’집단의 단어완성률은 2개 중 0.71개로 약 35%에 달하여 실험 2의 ‘을’집단의 단어 완성률이 실험 1의 ‘을’집단보다 5%가량 높았다. 따라서 (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1 사회

1번 문제 답안

전통적 과학 탐구방법인 인과론은 진리를 탐구할 수 없는 잘못된 연구방법인가 아니면 단지 필요성이 없어졌을 뿐인가.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전통적 과학 탐구 방법인 인과론에 대해서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는 인과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반면 (나)와 (다)는 인과론을 일부 긍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먼저 (가)는 현실세계가 우리의 이성과 감각을 뛰어넘는 거대한 원리에 의해 흘러간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임의성과 우연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도 우리는 단지 이성과 감각으로 이를 파악했다고 생각하여 원인과 결론 사이의 필연성을 확보하려한다고 지적한다. 즉, 이성과 경험으로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허구라는 것이다.

(나)는 상관관계에 의한 탐구방법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인과론적 탐구론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 또한 인과론을 인정하는 연장선상에서 내적한계를 지적하고 있을 뿐이므로 인과론적 탐구방법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인과론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의적 태도를 취하는 반면에 (다)는 인과론이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내적한계를 지적하며 회의적 태도를 취한다는 차이가 있다.

(나)는 무수한 정보가 쏟아지는 페타바이트 시대에 굳이 기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탐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단지 여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용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한다.

(다)에 의하면 한 사건은 경중을 가릴 수 없는 여러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존의 인과론에 기반을 둔 사회과학적 탐구방법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선적으로만 인과관계를 파악해왔다고 지적한다. 이런 태도를 볼 때 최대한 여러 원인들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무수히 많은 원인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을 지적하는 글로도 볼 수 있다.

2번 문제 답안 -1

제시문 (라)의 첫째 주장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라는 것이고, 둘째 주장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원인과 결과를 통해 이를 검토하는 인과론에 기반을 둔 전통적 과학탐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두 주장을 검토해보면 [표1]에서 대학 이상, 건강상태 ‘하’인 사람의 비율은 22.7%로 고졸, 건강 상태 ‘하’인 사람의 비율인 18.4%보다 높으므로 첫 번째 주장은 틀렸다. 그리고 [표2]에서 대학 이상, 소득 수준 ‘상’, 건강상태 ‘하’인 사람의 비율은 25.6%로 대학 이상, 소득 수준 ‘중’, 건강상태 ‘하’인 사람의 비율인 13.6%보다 높으므로 두 번째 주장도 틀렸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결과는 인과론적 탐구방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두 주장이 옳지 않다고 밝혀졌더라도 (나)의 입장에서는 위 연구결과는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주장은 페타바이트의 시대에서는 굳이 인과관계를 밝힐 필요 없이,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위 연구결과에서 두 주장에 대한 검토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사이의 완벽한 인과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서 건강상태가 정비례관계를 유지한다는 상관관계를 밝혀냈기 때문이다. 물론 두 주장과 그에 의해 수집된 자료가 구시대적 유물인 인과관계에 따른 가설모델의 검증을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위와 같이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성과를 냈으므로 (나)는 이 연구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2번 문제 답안 -2

제시문 (라)의 첫째 주장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라는 것이고, 둘째 주장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원인과 결과를 통해 이를 검토하는 인과론에 기반을 둔 전통적 과학탐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두 주장을 검토해보면 [표1]에서 대학 이상, 건강상태 ‘하’인 사람의 비율은 22.7%로 고졸, 건강 상태 ‘하’인 사람의 비율인 18.4%보다 높으므로 첫 번째 주장은 틀렸다. 그리고 [표2]에서 대학 이상, 소득 수준 ‘상’, 건강상태 ‘하’인 사람의 비율은 25.6%로 대학 이상, 소득 수준 ‘중’, 건강상태 ‘하’인 사람의 비율인 13.6%보다 높으므로 두 번째 주장도 틀렸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결과는 인과론적 탐구방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의 입장에서는 위 연구결과는 기존의 인과론에 기반을 둔 과학 탐구 방법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했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지적할 것이다. (다)의 관점은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원인은 무수히 많고, 그 원인들 사이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에도 단선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라)의 연구결과는 건강상태라는 하나의 현상을 탐구함에 있어서 그 원인을 교육 수준 혹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으로 한정하여 단선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의 입장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력’, ‘거주 지역’, ‘직업’ 등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원인들도 충분히 고려하기를 요구할 것이다.